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4월 12일 금요일 (음 3월 8일)

제226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00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1일 전주시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야외 광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관계자들이 독도를 알리는 서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청소년들이 태극기를 들고 힘합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올인'

송 지사, 추경 반영위해 이해찬 민주당대표 등과 면담
새만금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등 반영 건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 8일 중앙부처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이어서 11일 정부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긴급히 국회를 방문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면담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공폭행보에 나섰다.
이 같은 동분서주 국가예산 확보 활동 배경은 미세먼지, 일자리 중심의 정부 추경이 조만간 당정협의회 개최 후 4월안에 국회 제출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주가 예산확보에 중요한 시기로 판단해 온힘을 다해 발 벗고 나섰고 있다.
이날 송 지사는 정부추경예산에 전북도 중점사업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이해찬 당대표에게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기업집적화, 연구기관 및 인력양성센터가 구축되고 있는 새만금지역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2019년 추경에 6억원과, 전북도가 수소상용

차 및 수소건설기계, 수소 드론 등 수소산업의 선점을 위해 '수소차·수소 충전소 보급'에 90억원, 새만금 방조제 하부도로와 상용차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상용차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45억원과 도로 재비산먼지로 인한 도민피해를 예방하고 폭염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하여 콜린·쿨링로드, 벽면 녹화사업에 69억원 반영을 건의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면담을 통해서도 신사업 아이디어 분야의 창업을 확산해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에 신사업 창업사관학교가 구축될 수 있도록 2019년 추경에 37억원과, 20년이상 노후 산단 및 도시재생사업 지역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차단숲을 조성 위해 23억원 반영 등 6개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건의했다.
앞으로, 2019년 추경 및 2020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지휘부 등이 부처 릴레이 방문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쟁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사전 협의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

조활동도 빈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18일에는 최용범 행정부지사가 산업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할 계획이고, 23일에는 이원택 정부부지사가 지역국회의원 정책보좌관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정치권과 공조한다.
또한, 26일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과기부 등을 방문해 홀로그램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 스마트팜 SW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 R&D 사업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민선6기부터 다져 온 정책들을 정성을 다하여 끊임없이 갈고 닦는 노력으로 대도약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지를 담은 국가예산 확보에 온 힘을 전할 계획"이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군과 협력하고,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예산 반영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낙태죄 처벌 조항 '헌법불합치'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정신 받들어

전북도,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기념식 행사
임정요인 유족 4인 초청 격려·현장 선포문 낭독

전북도는 11일 오전 10시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 송성환 도의회 의장, 이강안 광복회 전북지부장, 김승환 교육감, 도내 보훈단체장 및 광복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은 임시정부에 기여한 김일두, 강태평, 윤건중, 소병원 애국지사 에 대한 공적을 소개하고 후손들을 격려한 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약사보고,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3.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라는 제목의 창작관소리 특별공연(작사 장차 부장, 김승환 교육감, 도내 보훈단체장 및 광복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식전행사에서는 독도 사진전

테이프 커팅, 아귀 무용단의 공연이, 식후행사에서는 35사단 군악대의 나라사랑 음악과 서예 퍼포먼스, 지무단 공연, 비보이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기념식장 주변으로 체험 부스(태극기 목판, 캘리그라피, 한반도 퍼즐 등)를 운영하여 도민들의 현장참여를 유도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내 3·1운동 및 임시정부 독립운동의 역사 보존과 계승, 유적지와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대우받고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현재, 자사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결정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와 일반고등학교 중복 지원을 금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다만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토록 자사고를 후기 지원 학교로 규정할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는 11일 자사고 학교법인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1조5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

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조항이다. 자사고를 후기 지원 학교로 규정할 80조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에는 이르지 못해 합헌 결론이 내려졌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의 결정은 '자사고에 지원한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의 특혜를 주는 것을 헌법정신이라고 본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평가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현재의 결정은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들의 고등학교 입학 기회에 관한 것으로, 따라서 현재 결정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사고 평가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 자사고 평가는 원칙대로 간다."고 밝혔다. /장문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율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